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의 해외 보급 현황과 과제*

장경태**(용인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택견의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외 보급 현황을 분석·논의하여 세계화 방안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사례분석, 참여관찰,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하여 택견 세계화 정책의 일관성과 현재성 그리고 미래를 해석하는 ‘통합적 연구’ 방법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전문가들의 택견 세계화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 첫째, 택견의 특징점을 차별화하고, 신체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이미지 제고와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타 무예와의 사례 비교분석,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셋째, 경기의 표준화가 최우선적이며, 상위 기구인 국제기구 설립 및 수련체계의 표준화, 공통된 기술을 표준기술로 삼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종합해 볼 때 택견을 세계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택견 단체 간 연대와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문화콘텐츠로 세계인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택견, 세계화, 해외 보급, 인류 무형유산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2019S1A5A2A01046845)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yongtaek89@hanmail.net

I. 서 론

우리 전통 속의 생명 평화 사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편적인 정서이다. 이러한 맥을 제대로 짚어낸다면, 우리 문화와 전통에 살아있는 ‘보편성’은 세계인과 호흡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 콘텐츠는 세계를 향한 문화 발신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신승일, 2011). 택견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특성과 신체적·체육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전통 스포츠이다. 많은 전통문화가 ‘대중화’란 이름으로 그 본연의 가치와 모습이 사라져가기 마련인데, 택견은 바꾸어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구분하며 오랜 기간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이다. 이는 언제나 민중 속에 있으면서 그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85개국 300여 가지의 음악, 축제, 기술 등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2011년 무예 종목으로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무예가 바로 대한민국 택견이다.

2021년은 택견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함께 보존·계승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택견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원인·배경에 따른 택견의 해외 보급 전개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는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연구의 경향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하여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택견의 해외 보급 현황과 세계화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한류 세계화를 위한 연구로 한충민(2009)의 브랜드 세계화의 성공 조건, 신승일(2011)의 한 세계화 콘서트, 최광식(2013)의 한류 로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홍석경(2013)의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전통 스포츠의 세계화 보급 사례로 김주연·김은정·정응근(2007)의 ‘코리아 가라테’의 등장과 태권도의 해외 진출, 김백수(2007)의 태권도 세계화 과정에 관한 고찰, 서성원(2016)의 태권도 역사와 문화의 이해로 태권도 연구자들은 개인 사범의 해외 진출 과정과 성공사례, 시범 및 스포츠화된 경기를 통해 세계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기탁·김홍설·강호정·황선환(2012)의 씨름의 세계화 방안, 국민생활체육회(2014)의 전통 스포츠 세계화 방안 연구, 김민유(2014)의 용무도의 인도네시아 도입과정 고찰을 통해 개인적 성공사례와 전통 스포츠의 세계화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태권도의 해외 보급 사례로 도기현(2003)의 태권 그리고 나의 스승 송덕기, 이용복(2007)의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여덕(2007)의 여덕의 태권 이야기, 김주형(2008)의 TAEKKYON 태권, 이용복(2012)의 Taekkyon, 신종근·양재식(2017)의 태권의 이해와 수련을 발간하였다. 태권 문헌을 통해 해외 보급을 위한 영문, 4개국 언어 번역본과 해외 공연을 통한 보급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태권도의 해외 보급과 전망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태권의 세계화의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 방안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국외 실태 분석을 통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용과 실용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태권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관광 사업과 연계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문화 자원의 보고로서 가치를 확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과 전통 스포츠인 태권의 국제 스포츠적 육성 기반 구축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태권 세계화의 의의를 제시함과 동시에 상생의 가치와 연대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자에 의한 관련 문헌 고찰, 태권 단체 및 전통 스포츠 단체 사례 비교 검토 및 분석, 세계태권대회 경기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또한 문헌자료 및 코로나-19로 인한 참여관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 선택 방법인 준거적 선택을 활용한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통합적 연구 (mixed methods)’ 방법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첫째, 태권의 해외 보급 현황은 단체별로 원자료를 분류한 후 연구 참여자에게 분류의 정확성 검토 과정을 거쳤다. 둘째, 문헌자료와 사례검토 및 참여관찰을 통해 기록한 내용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일치성을 확인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진실성과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 면담 이후 바로 녹취 과정을 거쳤고, 해외 보급 과제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가 검토를 통해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과 보완 절차를 거쳤다. 이상과 같이 태권 해외 보급 방안을 분석·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태권의 해외 보급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순 서	연구 참여자	나이	면담일시	소요 시간	면담 장소	관련 직책
1	NDH(A)	45	2020.07.27.	100분	Y대학교 교수연구실	국군체육부대체육과학연구실장
2	DKH(B)	60	2020.07.15.	120분	결련태권협회 사무실	사) 결련태권협회 회장
3	PHS(C)	54	2020.03.05.	70분	대한태권회 사무실	사) 한국태권협회 사무총장
			2020.06.28.	80분	충주시 커피전문점	
4	AJS(D)	39	2020.05.11.	120분	용인시 커피전문점	발광 엔터테인먼트 대표
5	ACY(E)	37	2020.04.07.	115분	올림픽공원커피전문점	대한태권회 사무차장
6	OSG(F)	54	2020.06.16.	110분	대한태권회 사무실	대한태권회 사무처장
7	HGS(G)	52	2020.02.25	120분	대한태권회 사무실	WMC 기획경영부 부장

Ⅲ. 전통 스포츠의 국내·외 현황 분석

1. 태권 단체 목적의 형태 및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비교

1) 단체 목적을 통해 본 보급 형태와 현황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하나의 단일한 이름으로 시작된 태권 단체는 1983년 창립된 (사)한국태권협회(당시 한국전통태권계승회의 전신), 1984년 창립된 (사)대한태권회(당시 한국전통태권연구회의 전신), 1985년 창립된 (사)결련태권협회(당시 서울태권계승회, 1993년 태권계승회 개칭), 최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관리단체로 (사)국가무형문화재 태권보존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태권 4개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주요 사업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한태권회만 체육 단체이고, 3개 단체는 문화재청 및 전통 지역문화 단체로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태권보존회는 태권 원형 보존을 위해 전수 교육 및 전승자 양성 사업을 두고 있으며, 한국태권협회는 보존과 전수를 위한 활동, 결련태권협회는 전승·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대한태권회는 경기대회의 독점적 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로 표준화된 경기 기술로의 대회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 태권보존회 외 3개 단체는 태권 경기대회를 통한 선수와 지도자 육성을 사업 영역으로 두고 있다. 다섯째, 대한태권회와 한국태권협회는 전수관 관리 및 심사제도를 통해 회원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태권보존회는 송암 신한승 선생 추모 공연 등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곱째, 4개 단체 모두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세계태권대회 주관·주최, 국의 태권 특별 전수 교육 및 세계화 관련 해외 지부 설치와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태권 단체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주요 사업의 차이는 태권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는 태권을 무형의 문화재로 바라보는

관점과 경기스포츠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원형논쟁으로 비화되어 1987년 송덕기·신한승 사후(死後)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단체 간의 고질적 갈등이다. 이러한 단체 간의 갈등을 택전 국내 저변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와 세계화를 위한 가치·연대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의 보존체계 비교

정부로부터 중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전·씨름·활쏘기의 전승 및 보존 체계 비교는 <표 2>와 같다.

표 2. 택전·씨름·활쏘기의 문화재 전승 및 보존체계 비교

비교요인	택전	씨름	활쏘기
전승을 위한 장소	공적 장소+사적 장소 충주시립, 전국전수관	사적 장소, 경기 및 훈련 장소만 존재	지방 자치단체 관리 전국 활터 360여 곳
유네스코 등재	2011년 인류무형유산 등재(세계 무예 최초)	2018년 인류무형유산 등재(남북 공동등재)	단체를 중심으로 준비 중
문화재청의 보호	적극적-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종목 지정	소극적-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종목 지정	소극적-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종목 지정
원형 보존·시연체계	있음.(충주시립택전단, 의무시연 시행)	없음.(시범단 있으나 원형 시연과는 무관)	없음.(조선의 궁술에 묘사된 사법 계승 필요)
종목 이해	문화재로 인식	경기스포츠로 인식	경기스포츠로 인식
전승 체계 계보	존재 도제식(스승→제자)	없음, 학교 훈련 또는 자연 전승	존재, 사람·활터 사법·사풍 다르게 전승
승단체계	존재(동, 짝)	존재(단)	존재(단)
수련의 지향점	가치지향 예의, 격식, 원형에 치중	결과지향 승부에 치중	엄숙주의, 과녁 맞히기, 경기 운영방식
보유단체 지정	존재-보유단체,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지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음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 않음, 보사 지정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씨름·활쏘기가 택전과 다른 점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씨름과 활쏘기는 무형문화재가 아닌 경기스포츠로 인식되어 있었고, 씨름과 활쏘기는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각별하였으나, 태권은 태권인들이 자구 노력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보유단체 모두 문화재의 울을 뛰어넘어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승에만 정책적 방향이 맞춰져 있어, 앞으로는 진흥·육성을 위한 경기스포츠적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2. 태권의 해외 공연·경기 및 지부 현황

태권을 세계인에게 가장 먼저 전파한 태권인은 결련태권협회 도기현 회장이다. 도기현 회장은 송덕기 용으로부터 태권을 사사받고, 1986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체육학과 석사과정 중 대학에서 태권 시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태권클럽까지 창설하였다. 또한, 대한태권회는 1996년 11월 중순 15일 일정으로 캐나다 오타와, 해밀톤, 토론토, 나이아가라와 미국 시카고, LA를 돌며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진행했다. 14명이 참가하여 제1차 해외 원정 태권공연단은 사상 처음으로 태권 세계화의 문을 열었다. 이 당시 해외 공연 초청은 대부분 한인 태권도 관장들이었으며, 활달한 기상이 있는 상무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원했다(이용복, 2007). 첫 공연을 통해 세계화의 필수조건이 외국어임을 깨닫게 되었고, 현지 태권도 관장 또는 무술지도자의 초청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각 태권 단체를 중심으로 수십 차례의 해외 공연 및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태권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의 국가 체육조직 가입은 없는 상태이다. 재일본, 재중국태권연맹 등이 20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였으나 현재 휴지 상태이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태권지도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은 어려운 형국이다. 이와 다르게 프랑스 경우는 2010년부터 두 명의 지도자의 노력으로 수련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지도자의 활약은 EU 회원국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체코, 영국, 이탈리아 등에 동호인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정리해보면, 해외지도자들은 자국 체육

회에 종목 승인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설립에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택견 수련 및 전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현지 지도자들에게 행정적인 절차와 가입의 필요성을 재차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국내 지도자 파견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행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3>은 1983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택견 단체의 해외 보급을 위한 공연 및 세미나, 경기 내용이다.

표 3. 택견 단체의 해외보급 활동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회
1987.09.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택견클럽 창설	1996.11. 캐나다(오타와), 미국 7개 도시 공연
2014.08. 독일 드레스덴, ‘Korea Live	1997.09. 미국 L.A. 하와이 공연
2017.04. 호주 멜버른 ‘코리아 워크’ 공연	1998.08. 미국 L.A. 공연
2017.08. 프랑스 노르망디, ‘Korea Live	1999.04. 카자흐스탄 공연
2018.02. 체코 프라하, 택견 세미나	1999.09. 미국 L.A. 라스베이거스 공연
한국택견협회·택견보존회	2000.03. 프랑스 파리 국제무술대회 택견 공연
2011.10. 중국 산둥성, 택견 전수 교육	2000.08. 캐나다 위니펙, 포크로라마 택견 공연
2012.04. 베트남 택견 시연회 개최	2000.09. 캐나다 워커톤, 택견 공연
2018.08.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제1회 페르가나 국제무술대회 택견 공연	2000.11. 미국, 캐나다 지도자 파견
2019.06. 폴란드 그단스크시, 택견 공연	2000.11. 프랑스, 주요 도시 순회공연
2019.1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 무예의 밤’ 택견 공연	2004.10. 스위스 제네바, 세계박람회 택견 공연
	2012.06. 프랑스 베르사유, 택견최고수전 개최
	2012.12. 중국 칭다오, 천하택견명인전 개최
	2013.11. 미국 워싱턴DC, LA, 택견 아리랑 공연
	2014.10.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택견공연

3. 국내 연수와 세계택견대회 추진과정

1) 세계무술연맹의 문화동반자 연수와 실태

세계무술연맹은 2002년 창설 이래 충주시의 지원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 42개국 회원단체들이 모이는 세계무술연맹 연례총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관련 활동 등 무술의 보전과 가치 창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택견 세계화를 위해

세계무술연맹의 문화동반자 사업 태건 연수를 진행한 태건보존회와 한국태권협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세계무술연맹의 문화동반자 사업 태건 연수

년도	장소	참가국가	중요 활동 내용
2013	대한민국	몰도바, 베트남, 우크라이나(3개국)	-3개월간 태권 연수 및 UNESCO 공식후원 행사 참가 및 축제 스텝 참여 -한국어교육, 문화탐방, 청소년 대상 교육
2014	대한민국	가나, 몰도바, 미얀마, 스리랑카, 수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7개국)	-5개월간 태권 연수 -한국어 강좌, 문화탐방, 재능 기부활동
2015	대한민국	가나, 캄보디아(2개국)	-3개월간 충주세계무술축제, 연맹 총회 및 국제무예 컨퍼런스 등의 국제업무지원 -청소년 대상 재능기부, 한국문화탐방
2016	대한민국	가나, 라오스, 몰도바, 베트남, 에티오피아, 이란, 세네갈, 캄보디아(8개국)	-4개월 10일간, 250시간 태권 연수 -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4회) -제8회 세계태권대회 선수 참가
2017	대한민국	콜롬비아,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세네갈, 가나, 몽골(8개국)	-5개월, 200시간 태권 연수 -자국의 무술과 문화소개 및 재능기부 -해외 태권 소개 및 전파

위와 같이 문화동반자의 성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세계무술연맹은 문화동반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2017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동반자 사업’ 운영기관으로 5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참가자들은 한국의 ODA 중점 협력 대상 26개국 중 해당 정부와 무예 단체장이 추천한 무예 수련자와 관계전문가로 자국(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태권 연수를 진행하였다. 셋째, 문화동반자 사업 참가자들은 연수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무예 진흥과 발전, 태건의 해외 전파 및 홍보에 이바지하였다. 넷째, 문화동반자 사업은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다만, 세계태권대회, 외국 지도자 태권 연수 및 국제무술 이벤트 등에 참가한 해외 무술지도자들이

귀국 후 택견 종목 해외 지부 설립 및 지속적인 택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관중 및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타 무예와의 경기 비교는 급조된 외국인 선수로 인한 택견 경기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있는 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2) 세계택견대회 추진의 정체성

2016년 처음 개최된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택견 경기는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7개 세부 종목 중 3개 종목만 개최국이 우승하고, 4개 종목은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호주 등 다른 나라가 우승을 하면서 흥미롭게 경기가 진행이 되었다. 이후 차기 종목 대회에서는 관중들이 흥미롭게 지켜본 맞서기와 정형화된 연무전을 적절히 섞어서 경기를 진행하면 관중들에게 더욱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경기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에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제경기대회 절차에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택견의 정립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종 메뉴얼 등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택견 경기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였다. 2019년 대회는 2016년 택견 대회보다 외국인 선수들의 참여가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2년여 만에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결과에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명성에 맞게 대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심판의 공정성 시비 및 경기력 부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국에서 연수를 통해 참여한 선수들의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적인 우수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택견회와 결련택견협회 소속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위의 합리적인 선수선발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표 5>는 2016·2019년 개최된 대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2016·2019년 세계무예마스터십·제11회 세계태권대회 태권 경기

대회	일시	장소	종목	참가국가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2016.09.03 (09:00~18:00)	청주 체육관	7개 종목 (남자 4개, 여자 1개, 공통 2개) 맞서기, 연무	호주, 캐나다, 불가리아, 프랑스, 그리스, 몰도바, 네덜란드, 터키, 대한민국, 몽골,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가나(15개국 60명)
2019 세계무예마스터십	2019.08.30	충주 태권원	8개 종목 (남자 5개, 여자 1개, 오픈 2개) 견주기 개인전 맞서기, 본때회기	폴란드, 필리핀, 그리스, 덴마크, 가나, 리비아, 러시아, 네덜란드, 한국, 호주, 프랑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태국, 이탈리아, 몰도바(23개국, 71명)
제11회 세계태권대회	2019.08.31~09.01	충주 태권원 특설 경기장	국가별-맞서기 개인전, 대결이 개인전, 대결이 단체전, 불퇴기 개인전, 막퇴기 단체전, 국내별, 개인전, 단체전	폴란드, 필리핀, 그리스, 덴마크, 가나, 리비아, 러시아, 네덜란드, 한국, 호주, 프랑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태국, 이탈리아, 몰도바(23개국, 71명), 국내 250여 명

4. 전통 스포츠의 세계화 사례 비교

세계적으로 21세기의 주요 키워드는 ‘문화’이다. 이미 여러 연구자도 전망했듯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국가 경제의 승부처가 문화산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된다. 이는 단순히 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교육, 환경,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은 각 나라에 파견된 해외 사범들을 통해 태권도 해외 보급의 시작이 이뤄졌으며, 스포츠어코드(SportsAccord, 전 국제 스포츠 연맹 기구 GAISF) 가입의 절차를 거쳐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정식종목채택,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올림픽 정식종목채택의 과정을 통해 세계화를 이뤘다. <표 6>은 전통 스포츠의 세계화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6. 전통 스포츠의 세계화 사례

종목명	세계화 내용
태권도	• 1961년 대한태권도협회 결성 이후 약 40년 만에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 • 1946년 한국 무예의 통합화 과정을 거쳐 1961년 대한태권도협회 결성, 1972년 국기원(대한민국태권도협회 중앙도장),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이 결성됨 • 1994년 프랑스 파리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정식종목 채택,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세계승마 양궁연맹 (마상 무예 -기사)	• 마상무예(기사) 2005년 세계승마 양궁연맹 창립 이후 15년간 30개국 보급 및 유네스코 공식후원 대회 인정 • 한국의 전통 기사법(기사, 모구의 복원, 마사회)의 경기화를 통한 세계화 • 요르단 국왕 초청대회 ALFA RIS 대회,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 정규교과목 채택 및 전용 센터 건립 • 세계대회 10여 개(스위스, 미국, 독일, 요르단, 벨기에, 중국, 한국, 일본, 이란 등)
국술	• 1974년~1990년까지 미국 50개 주에 모두 등록하고 특허권, 미국 중심으로 보급 시작, 세계국술연맹(The World Kuksool Association), 30여 개국 150여만 명 보급 • 국술원에서 도장의 경영 법 지도, 도복 지원, 기념품 지원, 승단체계 구축
용무도	• 1995년 용인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배경으로 창시한 무예, 2000년 대한용무도협회 사단법인 인가, 2002년 세계용무도연맹 창립, 38개국 10여만 명 보급 • 2007년 제1회 세계용무도 선수권대회 개최, 인도네시아 국방 무술로 채택 • 승단체계 구축, 2016, 2019년 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2017 진천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참가

세계승마양궁연맹(World Horseback Archery Federation)은 마상무예-기사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무예로 2005년 창립 이후 15년간 30개국 보급 및 유네스코 공식후원 대회로 인정되었으며, 한국의 전통 기사법을 경기화하여 세계화 성공하였다. 이렇듯 마상무예 기사 종목은 전통 기사법을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주도한 종목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무술연맹에 가맹, 유네스코 후원 세계기사 선수권대회 개최, 2016, 2019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참가하였다. 국술은 1958년 서인혁을 통해 국내에 보급, 1974년 이후 해외에 도장 프로그램으로 보급해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보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 과정은 해외 보급과정에서 도장 프랜차이즈로 세계화하였다. 용무도는 1995년 용인대학교에서 창시한 무예로 2002년 세계용무도연맹이 창립되었다. 2007년 제1회 세계용무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6, 2019년 세계무예마스터십 Mastership종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국방 무술로 군인들이 진급

을 위해서는 승단을 취득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렇듯 전통 스포츠의 세계화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4종목의 전통스포츠는 국내 조직의 안착화 보다는 해외 지부 설립, 지도자 파견, 경기화 도입, 도장 프랜차이즈 개설 등의 전략에 집중하였다. 특히 세계 승마 양궁연맹은 과거 마상무예 기사 종목을 세계화한 사례로 전통 기사법을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게 융합(融合)과 창신(創新)의 절묘한 조합을 이뤄내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로 판단된다.

IV. 택견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 지향성

1. 택견 세계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21세기 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 브랜드는 바로 전통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가장 한국적인 문화콘텐츠가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 여러 민족마다 고유한 전통문화 공연을 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계승·발전하여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 공연화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라마다 고유하게 발달해온 전통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해내는 것이 곧 문화산업이며, 이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라 할 수 있다. 택견이 경기스포츠, 공연예술, 시범 중 어떤 분야가 세계화를 이루는 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권도의 경기, 공연예술, 시범의 구분으로 택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없다. 즉, 태권도 구분 방식은 무예로의 정체성을 더욱 혼란시킬 수 있다. 택견 고유의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A)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무도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태권도는 시범이라는 형태로 절대적 기여를 한 바 있다.” (D)

이처럼 전문가의 태권도의 사례를 참고하면, 대중들의 인지가 필요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유통이 중요한 과제라 언급하였다. 세계화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과제며, 경기스포츠적 방법과 문화재적 요소인 시범·공연으로의 진출의 고민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택견은 경기스포츠이므로 국제 스포츠로 발전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점에서는 먼저 공연 예술적인 성격을 띤 시범을 통한 택견 알리기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 (B) “세계화로 가능성이 큰 분야는 공연예술, 스포츠, 시범 순이라 생각한다. 택견은 독특한 몸짓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무술이며, 다른 무술과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는 무술이기 때문에 공연예술로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를 통한 더 큰 목표인 경기를 통한 국제 스포츠로 세계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 문화의 다양성 또한 확보될 것이다.” (C)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처음 채택되었듯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대회는 자국 스포츠 종목을 대회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E) “세계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경기화다. 국제 스포츠로서 경기화를 통해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공연예술과 시범 등의 문화콘텐츠가 뒤따르게 된다.” (G)

따라서 세계화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 경기스포츠와 문화재 보급에 전문가들의 주장 상반되긴 하지만, 전문가, E와 F, G는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겨루기를 통한 경기스포츠화로 세계화가 가장 빠른 방법이며, 국제 스포츠를 통해 택견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반해 B, C는 현실점에서는 먼저 공연 예술적인 성격을 띤 공연예술, 스포츠, 시범 순으로 가능성을 모색하여 택견 알리기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2. 해외 보급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따라서 태권 해외 보급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해외 보급과정에서의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태권에 대한 무예적 인지도가 태권도 보다 부족하여 세계적 무예로 발돋움하려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 의지가 부족한 경향이 무엇보다도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A) “태권 영문용어와 태권 기술 명칭, 태권 경기 규칙이 표준화되어야만 세계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B) “국내 태권 단체 간의 협력, 기본표준체계(매뉴얼 등)를 다음 단계인 세계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C) “첫째로 태권의 국가적 지원이 미비. 둘째로 협회 차원에서의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D) “스포츠(무예) 지도자의 해외 파견은 민간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태권의 해외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국가가 인정하는 태권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 시행되고 있는바, 검증된 태권지도자를 해외 파견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E) “타 전통 무예와 비교해 태권의 해외 보급 역할은 20여 년간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해외 보급이 어려웠던 이유는, 국내 협회들의 무지에 있었다. 이러다 보니 태권의 국제기구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고, 해외 지원사업 등의 추진도 미흡했다. 중요한 것은 태권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G)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첫째로 태권에 대한 이미지 재고(再顧), 단체 간 협력으로 표준 수련체계와 경기 규정 재정비, 영문용어와 기술 명칭을 통일을 주장하였다. 둘째, 태권 단체의 무지(無知)함도 한몫했고, 타 무예의 해외 보급을 벤치마킹했어야 하며, 태권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꼭 필요하다. 셋째, 지도자 양성의 문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태권 전문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표준 수련체계 정립으로 검증된 태권지도자를 해외 파견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V. 태권 세계화의 전략 및 비전

1. 국제적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

태권이 현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역사로 남아야 한다. 이는 타 전통 스포츠들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 전통 스포츠와 비교할 수 없는 태권의 기술을 통한 경기화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형성하였다. 태권의 국제적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떠한 선결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권이 대중적 강한 무예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이후 국내의 인지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A) “태권은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와 몸짓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문화이다. 세계 시장에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B) “태권의 국제적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권 콘텐츠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해외공관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 “태권의 국제적 인지도를 위해서는 해외공관을 통한 홍보와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정부에서 태권도를 10대 국가 브랜드로 선정하여 명품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듯이, 태권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가 브랜드 선정으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D) “태권 경기 규칙 개선 및 경연 규칙 제정, 다양한 계층과 요구를 겨냥한 다양한 태권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F)

이처럼 전문가 A와 B, C, D, F는 태권의 국제적인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선 대중적으로 강한 무예로 주목받아야 하며, 태권만의 역사성과 정통성 그

리고 정체성과 우수성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해외공관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국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자국 전국체육대회가 시작된 지 100년 만에 정식종목에 채택되었으니 태권에 대한 국가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태권에 대한 국가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E) “국제 스포츠로의 발전은 경기 표준화가 최우선이다. 경기 표준화란 공인된 단체에 의한 성문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태권의 국제기구설립이며, 이 국제기구가 국제 스포츠 기구(GAISC, WMC 등)에 가맹해 타 스포츠 기구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권인들의 노력으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맞는 정부의 정책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G)

이를 언급되었듯이 현 태권 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즉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없음을 지적했으며, 경기의 표준화가 최우선적이며, 이는 공인된 단체에 의한 성문화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실천 속에 검증이 된다면, 정부의 정책예산 지원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2. 행정 조직 단일화로 세계화 추진 연계성

태권 단체는 현재로 문화재 관련 법인 단체인 한국태권협회, 결련태권협회, 태권보존회가 존재한다. 이 단체들의 주된 목적사업은 태권의 전수 교육 및 전승자 양성, 보존사업이다. 이렇듯 4단체 모두 해외 보급 및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세계화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태권 단체의 행정 단일화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화라는 동일 목표에 상호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조직 단일화가 반드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 “국내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일되어 해외로 진출하면 좋겠지만, 각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실제 많은 스포츠가 종주국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있음에도 세계화된 스포츠로 성장한 사례가 많다. 단체보다는 경기 규칙의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다. 경기 규칙의 표준화는 각국에 택견 경기의 언어와도 같다.” (G)

이처럼 전문가 A와 G는 택견 세계화를 위해 행정적 창구가 단일화할 필요성이 없으며, 단일화보다는 경기 규칙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경기단체인 대한택견회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도기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입장에서는 통일된 기구가 필요하지만, 해외 각국의 입장은 행정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것이다.

“먼저 국내의 모든 택견 단체의 상위 기구인 가칭 세계택견연맹과 같은 택견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 택견 단체가 필요하다.” (B)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려면 행정 조직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해당 기구에서도 단일화를 전제로 한 까다로운 조건을 명문화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C) “완전한 통합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경기와 수련체계 표준화, 그리고 국제화를 위한 단일 창구 신설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D) “택견 단체들은 다른 경기 규칙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복식과 용어뿐 아니라 택견의 영문 명칭 또한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제기구 설립 및 가입을 위한 경기 규칙의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

이에 반해 전문가 B와 C, D, E는 국제 스포츠 행사 또는 해외에 택견을 보급하려면, 모든 택견 단체의 상위 기구인 세계택견연맹과 같은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국제기구 설립 및 가입을 위한 단일 창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이른 시일 안에 선행되어 택견 세계화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상호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재정비로 통일된 표준수련체계 보급으로 세계화의 기준점

각 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보급과정은 많은 문제 노출 시켰다. 특히 표준수련체계의 재정비 및 이와 관련된 메뉴얼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택견 세계화를 위해서 택견 표준 기술(수련) 체계 메뉴얼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수련체계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 수련체계와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차후 택견 보급에 더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B) “표준 기술 체계 메뉴얼 제작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택견이 여러모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단체 간의 협력 체계구축이 이루어지면 기본 메뉴얼이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C) “표준 수련체계 메뉴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제이다. 단,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다.” (D) “현재 위 언급된 택견 협회들이 다른 수련체계와 경기 규칙을 온라인(홈페이지, 유튜브 등)으로 배포하고 있어 택견을 새롭게 접하는 국가와 수련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E) “기술 체계를 구성하고, 후에는 각국의 제안 등으로 경기체계를 변화하는 것이 국제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G)

이처럼 전문가들은 택견 세계화를 위한 표준수련체계의 통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화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반성하고, 현재 배포되고 있는 수련체계 및 경기 규칙은 해외 수련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내 단체들의 공통된 기술을 표준기술로 삼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만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국에 제안하여 경기체계를 변화시킨다면, 국제 스포츠 경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세계화를 위한 해외 파견 지도자 양성시스템 개선

대한택견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 지도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결련택견협회, 한국택견협회, 택견보존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택견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수자, 이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내 택견 단체들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지도자 양성시스템을 통해 해외 보급을 위한 파견 지도자의 양성이 가능한지 또는 이를 개선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지도자 양성이 해외 보급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예상된다.” (B) “지도자 한 명의 힘은 중요하기에 기본 매뉴얼에 따라 지도자 교육하고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C) “지도자의 파견만큼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파견 이후에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됨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D) “현재 택견 단체들이 각기 다른 기준과 커리큘럼의 지도자 교육 및 자격 시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 “택견지도자 기본적인 소양(택견 기본기, 겨루기 기술 및 훈련 방법, 택견 이론 및 기본 철학, 스포츠과학 등)을 갖춘 지도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데 필요하다.” (F) “체계적인 국제지도자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기술 체계에 근거하고, 이를 위한 교육매뉴얼과 지도자양성과정 등이 명확해야 한다.” (G)

위와 같이 택견 세계화를 위한 국제지도자 양성은 전문가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특히 외국인 지도자 양성 통해 해외 보급을 한다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프랑스 택견지도자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파견 이후 관리가 중요한 문제이며, 별도의 지도자 연수원 설치의 필요성 제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 국제적 감각에 맞는 지도자 양성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한민국 대표 무예 콘텐츠 선정에 대한 결단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5. 세계화를 위한 무예 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택견의 경우 입식 타격 스포츠 중 유일하게 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파괴력이 아닌 도피력을 사용, 도복이 아닌 한복을 경기복으로 착용하는 등 타 입식 타격 스포츠와 구별되는 역사상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의 과제인 택견 무예 기법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이처럼 택견의 스포츠다운 접근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택견 세계화 과제로 택견 무예 기법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는 각 문화 발전에 -중략- 택견 영문용어와 기술 명칭 등이 통일되지 않은 현실점에서는 차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 (B)

이처럼 전문가 B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택견의 기술 용어 및 영문이 통일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필요하며, 그중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방법의 하나가 전통문화 공연 및 시연이라고 본다.” (C)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택견의 발전과정을 기록한 논문, 저서, 영상 등의 기록물은 이후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D) “택견의 경우 입식 타격 스포츠 중 유일하게 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파괴력이 아닌 도피력을 사용, 도복이 아닌 한복을 경기복으로 착용하는 등 타 입식 타격 스포츠와 구별되는 역사상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택견 무예 기법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이처럼 택견의 스포츠다운 접근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 “택견 아카이브는 매우 중요한 택

건 콘텐츠의 원천소스가 될 수 있다. 성공한 태권도의 경우 지금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원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으로 따지자면 난개발을 한 거다. 난개발해도 세계화가 되었지만, 지금 그 세계화에 많은 부분 어려움이 정신과 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DB는 훗날 택견의 자산이다.” (G)

이를 언급하였듯이 택견의 무예 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세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택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택견의 역사성, 특수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예적 접근보다는 경기스포츠다운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 세계화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로 정신과 철학을 강조한 점에서 택견은 가능성이 크며, DB 작업은 훗날 택견의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6. 세계화를 위한 택견진흥법 제정

이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9조의 정신을, 국가가 실천해야 할 때다. 세계화 과제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택견의 보호·육성·진흥을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 간 협력체계 구성과 함께 2020 개정된 무진법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력적으로 택견 문화 행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반 확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A)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 전통무예진흥법이나 씨름 진흥법, 바둑진흥법을 보아도 그렇다. 현행법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원받는 법률적 근거가 된 종목이 택견과 활쏘기다. 법은 제정되어도 시행은 하지 않는 죽은 법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G) “택견의 대중화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예산지원이 필요하기에 택견진흥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택견만의 진흥법이 필요한 타당성과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대응책도 필요하리라 본다.” (C)

이처럼 전문가 A와 G는 현재로서는 택견진흥법 제정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태권도, 씨름, 바둑 진흥법 사례를 통해 법이 제정되었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죽은 법이라는 것과 법 제정에 반대할 전통무예 단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을 잘 활용하여 지자체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받는다면 택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언급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택견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MMA(종합격투기)의 인기와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점에서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 당연히 택견진흥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B)
“정부의 적극적인 택견 진흥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택견의 날 제정 및 전용 경기장 건설 등 택견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택견의 발전 및 위상 제고 등 적극적인 택견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
“택견 보급의 창구인 지역 전수관은 어떠한 국가적 지원이나 혜택 없이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에 운영되는 공공 테니스경기장 수가 총 718개인데, 전국에 공공 택견경기장 수는 0개이며,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실업팀 또한 0개이다. 택견의 보호·육성·진흥,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서는 택견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E)

이와 같이 제시하지만, 택견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택견의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차별화된 독특한 경기스포츠적 기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택견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국가적 지원이 배제되어 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택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무예로서는 최초로 등재되어 세계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택견은 한국화에서 세계화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는 무형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경기스포츠적 측면의 문화 다양성이다. 즉 택견의 보편적·문화적 가치는 한국적인 문화 형태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현시대의 택견 단체들은 양분되어 가고 있다. 택견은 처음 송덕기와 신한승 체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택견은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지속되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택견 단체 간의 양분된 전통성과 정통성에 휘말려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갈등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의미를 되짚어 생각해 보면 미래 택견의 중심적 실천의식은 범고창신(法古創新)이어야 한다. 즉 옛것을 본받아서 창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자는 뜻이다. 물론 범고창신을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인 지금은 더욱 국제적인 환경에 맞게, 옛것을 잘 지키면서도 그것이 세계적으로 또는 현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범고창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대중화를 위한 밑알에 이어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을 얻었다.

결과 첫째,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문화 다양성에 무예로서는 최초로 택견이 등재되었다는 것과 국가 브랜드로 가치가 격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 환경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승 활동에 맞춰져 있어 진흥·육성을 위한 경기스포츠 적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인류 무형유산 등재 이전까지 택견 단체는 목적사업이 문화재적 인식과

경기스포츠 적 인식으로 나뉘어 해외 보급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최초로 태권을 해외에 보급한 태권인은 도기현(회장) 이었고, 단체의 첫 해외 시범은 1996년 대한태권회였다. 이는 현재 태권은 국제 스포츠 기구 가입 이력이 전혀 없으며, 각 나라 국가체육회에 가입도 없는 상태이다. 다만 프랑스 등 몇 개국의 클럽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동반자 사업은 태권의 해외 전파 및 홍보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해외 보급을 위한 단행본 및 영상자료 홍보 및 소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전통 스포츠 사례분석을 통해 각 종목의 세계화 과정은 국내 조직의 안착화 보다는 해외 지부 설립에 집중하여 사범 파견을 통한 세계화 과정이었으며 경기화였다. 특히 세계 승마 양궁연맹을 과거 마상무예 기사 종목을 세계화한 사례로 전통 기사법을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게 융합(融合)과 창신(創新)의 절묘한 조합을 이뤄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렇듯 세계태권대회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태권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대중화의 기초단 위인 전수관의 부족과 심판의 공정성 문제, 해외 선수들의 경기력 부족은 해결 방안으로 남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태권 세계화의 의미와 1983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진행되었던 태권 해외 보급 현황과 전통 스포츠의 해외 보급 사례분석, 태권 세계대회 참여관찰을 통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태권 세계화 과제를 통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는데 그 제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태권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권 고유의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계화의 가장 빠른 방법은 경기화이다. 국제 스포츠로서 경기화를 통해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공연예술과 시범 등의 문화콘텐츠가 뒤를 따라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를 통한 국제 스포츠로 세계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 문화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다.

둘째, 해외 보급을 위한 국내 환경은 타 전통 무예에 비해 좋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해외 보급이 어려웠던 이유는 택견과 택견 단체의 무지(無知)였다. 그 결과 국제기구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고, 해외 지원사업 등의 추진도 미흡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택견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타 무예의 해외 보급 사례 비교분석,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다.

셋째, 타 전통 스포츠들과 경쟁을 통해 세계화는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택견의 차별화된 특성을 통한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을 구체화하면 세계화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택견의 국제적인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선 대중적인 강한 무예로 주목받아야 하며, 역사성과 정통성을 보여줘야 하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합해 볼 때, 전통은 한 민족이 그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해온 문화유산으로 그 민족의 문화를 벗어나서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택견은 전 세계 85개국 300여 가지의 음악, 축제, 기술 등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2011년 무예 종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재 2021년은 택견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함께 보존 계승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택견의 세계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1세기 문화의 강국에 세계를 통솔하는 시대를 우리는 목도(目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내적으로는 진정한 택견 단체 간 연대(連帶)를 통해 택견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는 택견에 내재된 문화 다양성으로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문화콘텐츠로 세계인에게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생활체육회(2014). **전통 스포츠 세계화 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제안서.
- 김기탁, 김홍설, 강호정, 황선환(2012). 씨름의 세계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8), 355-365.
- 김민유(2014). **용무도의 인도네시아 도입과정과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민호(2006). 한국 무예의 국제화를 위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17(3), 733-742.
- 김백수(2007). 태권도 세계화 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785-798.
- 김의환(2004). 21세기 무도 교육을 선도할 용무도의 역할. **대한무도학회**, 6(2), 47-64.
- 김정행, 조용철(2012). **용무도 세계 무도화를 열다**. 서울:레인보우북스.
- 김주연, 김은정, 정응근(2007). 코리안 가라테의 등장과 태권도의 해외 진출 -1960년대 한인태권도 사범들의 미국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 46(1), 33-43.
- 김주형(2008). **TAEKKYON 태권**. 서울:(주)동심.
- 대한씨름협회(2014).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방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씨름등재추진위원회.
- 도기현(2003). **태권 그리고 나의 스승 송덕기**. 서울: 동재.
- 박기동, 윤대중(2014). 용무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체육사학회지**, 19(4), 77-90.
- 서성원(2016). **태권도 역사와 문화의 이해**, 서울:(주)에니빅.
- 신승일(2011). **한 세계화 콘서트**, 서울:(주)새로운 사람들.
- 신종근, 양재식(2017). **태권의 이해와 수련**,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심승구(2019). 인류 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비교민속학회**, 69, 153-173.
-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학술대회(2017). **씨름 보존·전승 방향과 정책 방안**, 문화재청.
- 양진방(2002). 전통무도의 세계화 방안.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13(1), 91-98.
- 여덕(2007). **여덕의 태권 이야기**, 서울:학민사.
- 윤대중(2011). 한국의 용무도 지부 활성화와 인도네시아 보급과정. **한국스포츠인류학회지**, 6(2), 111-122.

- 이용복(2007).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서울:도서 출판 상아 기획.
- 이용복(2012). Taekkyon, 서울: 도서 출판 일렉션.
- 장경태(2018). 택견 단체 통합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과제. 한국스포츠학회지, 16(3), 747-760.
- 정진명(2020). 경기도 전통무예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전통활쏘기의 지금과 앞날, 7-16.
- 최광식(2013). 한류 로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나남.
- 한충민(2009). 브랜드 세계화의 성공 조건. 한양대학교 출판부.
- 허건식(2014). 세계무예마스터십 계획 방안. 한국스포츠인류학회지, 8, 29-41.
- 홍석경(2013).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 도서출판 한울.
- Guba, E(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29, 75-92.
- 국술원(<http://www.kuksoolwon.or.kr/>).
- 결련택견협회(<https://www.taekyun.org/>).
- 대한민국태권도협회(<http://www.koreataekwondo.co.kr/>)
- 대한택견회(<http://koreataekkyon.com/taekkyon/>).
- 문화재청 활쏘기(<http://www.cha.go.kr/main.html>.)
- 세계무술연맹(http://www.womau.org/e_index_true.php).
-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http://www.mastership.org/home/main.php>).
- 세계 승마 양궁연맹(<https://whaf.webnode.kr/>) 세계기사 연맹.
- 세계용무도연맹(<http://www.yongmoodo.org/>).
- 택견보존회(<http://tgps.or.kr/>).
- 한국택견협회(<http://www.krtga.com/>).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UNESCO Human Intangible Heritage of mankind Taekkyon in Foreign Countries

Jang, Kyeong-Tae (Yongin Univ.)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asks for globalization by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current status of Taekky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the designation to the present. To this end, 'multi-academic research' was applied using fusion analysis using research techniques from various neighboring studies based on literature review, cas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s, and 'integrated research' methods to interpret policy consistency, presentity and future.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globalization of Taekkyeon by experts in this way, firs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characteristics of Taekkyeon and accept fundamental analysis of body movements and expert criticism. Second,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image,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organizations, compare and analyze cases with other martial arts, and establish mid- to long-term plans. Third, the standardization of the game is the top priority,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common technology must be used as standard technology to minimize side effects. As above, efforts to globalize Taekkyon have not been wasted, and efforts to realize the value of Taekkyon organizations in the future are essential. If the foundation for globalization is established based on this, it will be able to attract attention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as Korean cultural content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Key words: taekkyon, globalization, Overseas distribu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논문투고일 : 2021.09.10.

심 사 일 : 2021.10.27.

심사완료일 : 2021.11.14.